

「釋譜詳節」의 저경과 저경 수용 양상

A Study on the Based Scriptures of *Seongbosangjeol* and the Pattern of Accepting Based Scriptures

김기종(Kim, Ki-Jong)*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3. 석보상절의 저경 수용 양상과 그 의미 |
| 2. 석보상절의 구성과 저경 | 4. 맺음말 |
| 2.1 현전본 낙장의 저경 추정 | <참고문헌> |
| 2.2 현전본의 구성과 저경 검토 | |

< 초 록 >

이 글은 본격적인 저경 연구의 일환으로, 현전 「석보상절」의 구성 및 저경과 그 수용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논 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전 「석보상절」 각 권차의 구성 및 저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저경을 찾았고, 아울러 기존 논의에서 잘못 파악한 저경을 바로 잡았다. 아직 저경을 찾지 못한 삽화의 경우에는, 후속 연구를 위해 그와 유사한 경전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둘째, 주요 저경의 내용 및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특히 「석가보」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석가보」는 5권본인 고려본과 10권본인 宋·元·明본의 두 종이 있으며, 「釋迦降生釋種成佛緣譜」 항목은 5권본과 10권본에 따라 그 인용 경전 및 내용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셋째, 「석보상절」의 저경 수용 양상과 그 의미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 결과, 「석보상절」은 여러 저경들의 내용을 삽화 단위로 분리하여 그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전체 문맥에 맞게 재구성하고 있음을 보았다. 또한 하나의 삽화 안에 여러 저경이 수용되어 있는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석보상절」의 편자는 어휘의 일치, 연결어미의 사용, 구절의 재배치 등을 통해 여러 경전의 수용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맥의 단절을 최소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요어 : 석보상절, 저경, 삽화, 석가보, 월인석보

*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시간강사(wkiji@hanmail.net)

접수일: 2005년 5월 16일 최초심사일: 2005년 5월 20일 심사완료일: 2005년 6월 20일

<ABSTRACT>

The present study, as a part of research on based scriptures, examined the structure and based scriptures of extant Seongbosangjeol and the pattern of accepting based scriptures. Discussion in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he process of examining the structure and based scriptures of each volume of extant Seongbosangjeol, new based scriptures were found and based scriptures that had been misunderstood in previous discussions were corrected. For episodes, the based scriptures of which had not been discovered, the contents of similar scriptures were suggested for subsequent studies.

Second, th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main based scriptures were examined and, particularly, the contents of Seokgabo(釋迦譜) were intensively analyzed. There are two kinds of Seokgabo. One is a five volume edition from the Koryo Dynasty and the other is ten volume edition from the Sung(宋), Yuen(元) and Ming(明) Dynasty. It was pointed out that the chapter of 'Seokgagangsaengseokjongseongburyeonbo'(釋迦降生釋種成佛緣譜) has differences in quoted scriptures and contents between the five volume edition and the ten volume edition.

Third, the pattern of accepting based scriptures in Seongbosangjeol and its significance were examined. According to the result, Seongbosangjeol divided the contents of several based scriptures into episodes and restructured them fittingly to the whole context according to the order of time. In addition, multiple based scriptures were contained in an episode, and the editors minimized the breaks of contexts caused by the acceptance of various scripture through the coincidence of vocabulary, the use of connective suffixes, rearrangement of phrases and clauses, etc.

Keywords : *Seongbosangjeol*, based scripture, episode, Seokgabo, *Wolinseongbo*

1. 머리말

「釋譜詳節」(이하 釋詳으로 표기함)은 한글 창제 직후에 간행된 활자본이고, 최초의 한글 산문작품이며, 崇儒抑佛의 시대에 편찬된 석존의 일대기이다. 이러한 문화사적 의의로 인해 釋詳은 일찍부터 학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서지학·국어학·국문학·불교학 등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그 중에서도 중세국어의 실상을 究明하기 위한 국어학적 연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고, 본격적인 연구의 출발이 되는 해제 역시 주로 국어학자들에 의해 작성되었다.

한편, 여러 학문 분과에서 공통적으로 논의된 문제로는 편찬 경위 및 간행 시기의 문제¹⁾와, 저경의 탐색 및 그 내용의 고찰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의 관심사인 저경과 그 내용에 대한 고찰은 釋詳 연구의 초창기부터 시작되어 이동립²⁾·심재완³⁾ 등의 연구에서 주요 저경들이 밝혀졌고, 이후 최근의 박금자⁴⁾·이호권⁵⁾의 논의에 이르기까지 부분적인 수정과 보완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기존의 저경 연구는 釋詳의 내용을 세분하지 않은 채 중심 내용 위주로 저경을 파악한 결과, 보다 구체적인 저경의 실상은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몇몇 저경의 파악에 있어서는 오류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⁶⁾ 물론, 釋詳은 저경의 내용을 축약 내지 요약하고 있으며, 意譯에 가까운 번역 태도를 보이고 있어, 직접적인 저본을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저경과 그 내용에 대한 고찰은 釋詳 연구의 토대가 되는 것이므로, 정확한 저경 파악과 가능한 범위에서의 저경 탐색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글은 본격적인 저경 연구의 일환으로, 釋詳의 저경과 저경의 수용 양상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현전본의

1) 이에 대한 선행 연구는 김영배, “월인석보의 편찬,” 『불교학논총』(서울: 동국역경원, 1998), 579-581에 잘 정리되어 있다.

2) 이동립, “월인석보와 관계불경의 고찰,” 『주해 석보상절』(서울: 동국대출판부, 1959), 9-21.

3) 심재완, “석보상절 제11에 대하여,” 『청구대 논문집』 제2집(1959), 50-51.

4) 박금자, 『15세기 언해서의 협주연구』(서울: 집문당, 1997), 116-123.

5) 이호권, 『석보상절의 서지와 언어』(서울: 태학사, 2001), 46-56.

6) 기존 논의 중, 저경을 잘못 파악한 사례는 2장의 관련 각주에서 밝혀놓았다.

내용과 저경을 삽화 단위로 세분하여 도표로 제시한 뒤, 필자가 새로 찾은 저경을 포함한 釋詳 전체의 구성 및 저경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3장은 2장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바탕으로 여러 경전들이 釋詳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울러 이러한 수용 양상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자 한다.

2. 석보상절의 구성과 저경

2.1 현전본 낙장의 저경 추정

釋詳은 순 24권 가운데 권3·6·9·11·13·19·20·21·23·24의 10권만이 현재 전하고 있다. 현전본의 간략한 서지 사항을 도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⁷⁾

<표 1> 현전 석보상절의 서지 사항

| 권차 | 간행사항 | 총장수 | 소장자 | 판본의 상태 |
|-----|-----------------|-------|--------|---|
| 권3 | 복각본(1561) | 43 | 천병식 | 끝장의 일부 훼손. |
| 권6 | 초간본 | 47 | 국립도서관 | |
| 권9 | 초간본 | 41 | 국립도서관 | 제20장 뒷면 1행의 마지막 4자가 없음. |
| 권11 | 복각본 (16세기중엽) | 44 | 심제완 | 제44장 낙장. 제14장 뒷면·15장 앞면·43장의 일부 훼손. |
| 권13 | 초간본 | 64 | 국립도서관 | |
| 권19 | 초간본 | 44 | 국립도서관 | 제26장 앞면 1~4행 훼손. |
| 권20 | 초간본 | 53 | 개인소장 | 제1장 낙장. 앞부분의 훼손이 심함. 제5장 뒷면 1행 훼손. 제25장 뒷면과 제26장 앞면 결락. |
| 권21 | 초간본 | 63(?) | 개인소장 | 제64장 이하 낙장. 제60장 이하 훼손이 심함. |
| 권23 | 초간본 | 59 | 동국대도서관 | 제1~2장 낙장. |
| 권24 | 초간본 | 52(?) | 동국대도서관 | 제53장 이하 낙장. |

7) 위 도표에서 '총장수'의 (?) 표시는 낙장으로 인해 그 총장수를 알 수 없다는 뜻이다.

10권의 현전 釋詳 중, 권3과 권11은 16세기 중엽의 복각본이고, 그 외의 권차는 모두 초간본이다. 그리고 권6·9·13·19는 중간본의 간행을 위한 교정본이다.⁸⁾ 1990년 학계에 소개된 권20·21을 제외하고는 모두 영인되었고 역주서 또한 출간되었다. 본고의 목적 상, 서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연구업적으로 미루고,⁹⁾ 여기에서는 저경의 문제와 관련되는 판본의 상태에 국한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앞의 <표 1>를 보면, 권6과 권13의 두 권만이 온전하게 전할 뿐, 나머지 권차에는 낙장이나 훼손된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저경의 탐색을 어렵게 만들 수 있지만, 다행히도 낙장 및 훼손 부분의 대부분은 저경을 알 수 있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곧 권3 4378~437110)의 “그 나뭇 노퍽 八千()이 시며 四千()”은 「釋迦譜」釋迦降生釋種成佛緣譜 第4之3의 내용으로, 저경을 통해 “그 나무의 높이가 8천리나 되었고 혹은 4천리가 되기도 하였다”임을 알 수 있다.¹¹⁾ 권9·11과 권19~21의 손상된 부분 역시 저경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¹²⁾ 특히 이들 권차는 각각 그 내용이 대응되는 「月印釋譜」(이하 月釋)가 현재 전하므로 당대의 표기로 복원 또한 가능하다.¹³⁾ 한편, 권11의 낙장인 제44장은 권말서명과 시주질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저경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 결국, 저경의 탐색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권차는 권23과 권24라 할 수 있다.

제1·2장이 낙장되어 전하는 권23은, “間애 겨시거나 漚槃호신 後 | 어나 信心

8) 이호권(2001), 33.

9) 현전본의 구체적인 서지 사항은 이호권(2001), 42~46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10) 4378~4371에서 43은 張次를, ‘ㄱ’은 앞면을, ‘ㄴ’은 뒷면을 나타낸다. ‘8’과 ‘1’은 행을 뜻한다. 곧 4378~4371은 제43장 앞면 8행부터 뒷면 1행까지를 의미한다. 이후, 본고에서 제시하는 장차 표시는 이와 같다.

11) 저경의 “或有佛樹高八千里 或四千里”(「大正新修大藏經」 제50권, 31中)에 해당한다.

12) 각 권차의 훼손 부분에 해당하는 저경의 소개는 지면 관계 상 생략한다. 대신, 다음 절에서 제시할 도표의 해당 권차를 참고하기 바란다.

13) 그 예의 하나로, 이호권이 권9 2071의 “고죽헌 맛슴맛로 디니면 누외() 모미”의 훼손 부분을 「월인석보」 권9의 38ㄴ을 참고하여 ‘야 겨시비’로 재구한 것을 들 수 있다. 이호권(2001), 44.

檀越이 金銀七寶一切 도헌 거스로 如來의 布施하스바든 어디 두리잇고”¹⁴⁾라는 阿難의 물음으로 시작하고 있다. 이 371부터 121-2까지의 저경은 唐 若那跋陀羅 譯의 「大般涅槃經後分」 遺教品 第1이다. 유교품 제1은 석존 열반 이후의 여러 문제에 대한 아난의 질문과 석존의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에서 인용한 부분은, 석존 열반 이후의 네 가지 일에 대한 아난의 질문과 이에 대한 석존의 대답이 끝난 뒤, 다시 아난이 석존 열반 이후의 공양 방법 및 그 공덕에 관해 묻기 시작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저경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낙장된 제1·2장은 아난의 추가 질문 이전, 곧 네 가지 일에 대한 아난과 석존의 문답 부분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¹⁵⁾ 그렇다고, 낙장 부분에 다른 경전의 내용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釋詳은 하나의 삽화가 여러 경전으로 구성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권24의 52L-6~52L-8은 “王이 後에 神靈의 盟誓하야 비니 太子스 누니 다시 나거늘 王이 묻네”라는 구절로 되어 있다. 이후 몇 장이 더 있었는지 알 수가 없는데,¹⁶⁾ 다만 釋詳 권24와, 그 내용 및 저경이 대응되는 月釋 권25와의 비교를 통해 낙장된 내용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논의의 편의상, 釋詳 권24와 月釋 권25의 이야기 전개 양상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1) 8만 4천 사리탑의 조성→ 아육왕의 아우 善容의 出家→ 龍王의 水精塔 조성→ 續命幡 이야기→ 석존 설법처의 塔廟 건립과 대제자의 사리탑 공양→ 菩提樹와 僧衆 공양→ 태자 法益 이야기

14) 이 구절에 대한 저경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若佛)在世若涅槃後 有信心檀越 以金銀七寶一切藥具施如來 云何舉置”(『大正新修大藏經』 제12권, 901下).

15) 참고로, 아난의 네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래의 열반 이후에 六群比丘와 車匿에게 어떻게 佛法을 보여야 하는가? 둘째, 여래의 열반 이후에 누구로써 스승을 삼아야 하는가? 셋째, 여래의 열반 이후에 무엇을 의지하여 머물러야 하는가? 넷째, 여래 열반 이후에 法藏을 결집할 때 모든 경전의 첫머리에 어떠한 말을 놓아야 하는가? (『大正新修大藏經』 제12권, 901上)

16) 이병주, “釋詳詳節 第23·24 解題,” 『동악어문논집』 제5집(동악어문학회, 1967), 187에서는 저경의 내용과 책 끝의 編緝 매듭의 紙片을 근거로 1장이 낙장되어 총 장수는 53장일 것이라 보았고, 이호권(2001), 44에서는 저경인 「釋迦譜」 阿育王造八萬四千塔記 第31의 남은 내용으로 보아 1~2장이 낙장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2) 8만 4천 사리탑의 조성→ 續命幡 이야기→ 석존 설법처의 塔廟 건립과 대제자의 사리탑 공양→ 菩提樹와 僧衆 공양→ 아육왕의 아우 善容의 出家→ 아육왕의 閻浮提 보시 및 죽음→ 法益의 아들 三波提의 왕위 계승→ <협주> 대자 法益 이야기

위의 (1)과 (2)는 阿育王의 佛法 弘布가 중심 내용인 釋詳 권24와 月釋 권25 중, 釋詳 권24의 낙장과 관련되는 8만 4천 사리탑 조성 이하의 삽화들을 옮긴 것이다. (1)은 釋詳 2377~5248의 내용이고, (2)는 月釋 8875~14244이다. (1)의 ‘龍王之 水精塔 조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釋迦譜」 阿育王造八萬四千塔記 第31이 그 저경이다. 몇몇 삽화의 위치가 달라졌을 뿐, (1)과 (2)는 저경과 그 내용에 있어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그런데, (2)의 몇몇 삽화는 (1)에 보이지 않아 주목을 요한다. 곧 (2)의 삽화 ‘아육왕의 閻浮提 보시 및 죽음’과 ‘法益의 아들 三波提의 왕위 계승’은 (1)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일단 釋詳 권24의 낙장은 이들 삽화일 것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추정은 「月印千江之曲」 其581의 後節이 삽화 ‘아육왕의 閻浮提 보시 및 죽음’에 관한 노래라는 사실에 의해 뒷받침 될 수 있다.¹⁷⁾

「月印千江之曲」은 釋詳의 내용을 노래한 詩歌로, 비록 「月印千江之曲」이 月釋에 편입되면서 노랫말의 어휘나 어미에 손질이 가해지기는 했어도, 노래 자체가 새로 추가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¹⁸⁾ 또한, 현전 釋詳의 체제로 볼 때, 아육왕의 일대기 성격을 갖는 釋詳 권24에서 아육왕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제외되지는 않았으리라고 본다. 그러므로, 낙장된 釋詳 권24의 537 이하에는 三波提에 관한 삽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아육왕의 閻浮提 보시 및 죽음에 관한

17) 참고로, 其581은 다음과 같다. “薄拘羅 | 말업더니 清白을 나토아 혼날돈을 아니바드니/ 阿育王 發願이커 閻浮提를 내야 億百千金을 주라게 하니”

18) 저경과 내용이 대응되는 현전본 중의 하나인 釋詳 권11과 月釋 권21에서, 釋詳 권11은 저경인 「地藏菩薩本願經」의 第1·2品만 抄錄하고 있고, 月釋 卷21은 13품 전체를 수록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해당하는 「月印千江之曲」 其415~417은 저경의 제1·2품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11품이 더 늘어났음에도 이에 대한 「月印千江之曲」은 보이지 않는다. 이를 통해, 月釋의 편자는 詳節部의 내용이 첨가되더라도 이에 대한 「月印千江之曲」은 새로 짓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야기는 실려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2.2 현전본의 구성과 저경 검토

이 절에서는 釋詳 각 권차의 구성과 저경을 도표로 정리하여 제시한 뒤, 이 도표의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임을 미리 밝힌다. 또한 서술의 편의 상, 권3, 권6·9·11, 권13·19·20·21, 그리고 권23·24의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먼저, 釋詳 권3을 구성하고 있는 각 삽화의 내용 및 그 저경을 도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¹⁹⁾

<표 2> 석보상절 권3의 구성과 저경

| 卷次 | 삽화의 내용 | 張次 | 저경 |
|-------------|------------|-------------------|------------------------------------|
| 권3 | · 古相 | 1-72~2-77 | 釋迦氏譜 法王化相 現生誕靈迹 召仙占觀相【因果經】 |
| | · 摩耶夫人의 죽음 | 2-77~2-85 | 釋迦氏譜 現生誕靈迹 母氏昇遐相【普曜經】 |
| | · 作名 | 2-86~3-76 | 釋迦氏譜 現生誕靈迹 立名建號相【因果經】 |
| | | 3-76~3-85 | 釋迦譜 釋迦降生釋種成佛緣譜 第4【普曜經】 |
| | | 3-85~4-3 | 釋迦氏譜 現生誕靈迹 立天祠相【因果經】 佛祖歷代通載 卷3 |
| | · 父王의 양육 | 4-3~5-4 | 釋迦氏譜 現生誕靈迹 保傅隨侍相【因果經】 |
| | · 太子灌頂 | 5-5~6-76 | 釋迦氏譜 集藝歷試迹 立爲儲后相【因果經】 |
| | | 6-76~6-83 | 알 수 없음 |
| | · 學諸書藝 | 6-83~8-78 | 佛本行集經 卷11 習學技藝品 第11 |
| | | 8-1~10-2 | 釋迦譜 釋迦降生釋種成佛緣譜 第4-2【普曜經·因果經·瑞應本起經】 |
| | · 결혼 | 10-2~12-1 | 釋迦譜 第4-2【普曜經】 |
| | | 12-1~13-73 | 釋迦氏譜 法王化相 集藝歷試迹【因果經】 |
| 13-73~14-77 | | 釋迦譜 第4-2【因果經·普曜經】 | |

19) 釋詳은 1면 8행, 매행 15자의 본문과 쌍행 細字의 협주로 되어 있는데, 釋詳의 협주는 해당 문구에 대한 설명이나 어휘에 대한 사전적 해설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협주를 따로 표시하지 않고 각 삽화의 張次에 포함시켰다. 이 절의 도표는 모두 이를 따른다.

「釋譜詳節」의 저경과 저경 수용 양상

| | | |
|--------------------|-----------------------|------------------------|
| | 14-7~14-4 | 알 수 없음 |
| | 14-4~14-8 | 釋迦譜 第4之2【因果經·普曜經】 |
| · 결혼생활 | 14-8~15-4 | 釋迦譜 第4之2【瑞應本起經】 |
| · 四門遊觀 | 15-4~16-7 | 釋迦氏譜 集藝歷試述 觀耕生厭相【因果經】 |
| | 16-7~21-7 | 釋迦譜 第4之2【因果經】 |
| · 태자의 출가 결심 | 21-7~21-7 | 釋迦譜 第4【普曜經】 |
| | 21-7~21-7 | 釋迦氏譜 出家尋教迹 啓出家相【因果經】 |
| | 21-7~21-8 | 釋迦譜 第4【普曜經】 |
| · 羅雲의 잉태 | 21-8~22-7 | 釋迦譜 第4之2【因果經】 |
| · 부왕의 출가 만류 | 22-7~24-7 | 알 수 없음 |
| | 24-7~24-7 | 釋迦氏譜 出家尋教迹 天神接舉相【普曜經】 |
| | 24-7~24-6 | 佛本行集經 卷16 耶輸多羅夢品 下 第20 |
| · 逾城出家 | 24-6~25-3 | 釋迦氏譜 出家尋教迹 天神接舉相【因果經】 |
| | 25-3~29-7 | 佛本行集經 卷16 捨宮出家品 上 第21 |
| | 29-7~29-1 | 釋迦譜 第4之2【普曜經·修行本起經】 |
| | 29-1~30-1 | 釋迦氏譜 出家尋教迹 天神接舉相【普曜經】 |
| | 30-1~32-7 | 釋迦譜 第4之2【因果經】 |
| | 32-7~34-1 | 釋迦氏譜 出家尋教迹 尋仙非奪相【因果經】 |
| | 34-1~34-4 | 釋迦譜 第4【普曜經】 |
| 34-4~35-3 | 釋迦氏譜 出家尋教迹 王師尋迹相【因果經】 | |
| · 두 仙人에게 禪定을 익힘 | 35-4~36-1 | 알 수 없음 |
| · 羅雲의 탄생 | 36-1~37-7 | 雜寶藏經 卷10 |
| | 37-7~37-8 | 佛本行集經 卷55 羅睺羅因緣品 上 |
| · 伽闍山 고행 | 37-8~38-7 | 釋迦氏譜 出家尋教迹 同邪苦行相【因果經】 |
| | 38-7~39-7 | 釋迦譜 第4【瑞應本起經·普曜經】 |
| | 39-7~39-2 | 釋迦氏譜 出家尋教迹 同邪苦行相【因果經】 |
| · 상자 딸의 우유죽 공양 | 39-2~41-7 | 釋迦譜 第4【普曜經】 |
| · 畢鉢羅樹 아래에서 의 결가부좌 | 41-7~42-7 | 釋迦氏譜 出家尋教迹 浴身受食相【因果經】 |
| | 42-7~42-5 | 佛本行集經 卷26 向菩提樹品 中 |
| | 42-5~43-6 | 釋迦譜 第4之3【因果經·觀佛三昧海經】 |

釋詳 권3은 석존의 유아 시절부터 결혼까지의 성장 과정과, 출가하여 伽闍山에서 6년 고행을 마친 뒤 正覺을 얻기 위해 畢鉢羅樹 아래에 앉기까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八相²⁰⁾ 가운데 四門遊觀·逾城出家·雪山修道에 해당한다. <표 2>에

20) 八相은 석존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일생 중 나타낸 여덟가지의 變相으로, 경전마다 조

서 먼저 눈에 띄는 점은 대체로 하나의 삽화가 여러 저경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3장에서 다룰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이러한 사실만을 지적하기로 한다.

저경에 있어서는 「석가보」와 「釋迦氏譜」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 그 외에 「佛本行集經」·「佛祖歷代通載」·「雜寶藏經」 등이 편입되어 있다. 그런데, 釋詳 권3의 중심 저경인 「석가보」의 경우, 도표에는 釋迦降生釋種成佛緣譜 第4와 釋迦降生釋種成佛緣譜 第4之2·第4之3으로 구분되어 적혀 있다. 「석가보」는 高麗本인 5권본과, 고려본의 釋迦降生釋種成佛緣譜 第4를 증보한 宋·元·明本の 10권본이 있으므로, 그 내용에 따라 「석가보 제4」와 「석가보 제4지2」 등으로 나누어 적은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5권본과 10권본을 구별하지 않거나²¹⁾, 구별하여 다룬 경우에도 10권본만을 그 저경으로 보고 있다.²²⁾ 釋迦譜는 釋詳뿐만 아니라 月釋의 중요 저경 중의 하나로, 釋詳 및 月釋의 저경 연구에 있어 항상 언급되는 佛典임에도, 5권본과 10권본의 차이점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된 적이 없다. 이에, 「석가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석가보」는 중국 梁의 僧祐(445~518)가 편찬한 佛傳으로, 세계의 형성에서부터 석존의 일대 사적, 그리고 열반 후의 佛法 弘布에 이르기까지의 일들을 여러 경전에서 발취·정리하여 34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각 항목의 소재목 옆에는 그 내용의 출전이 된 경전을 밝히고 있는데, 편찬자는 명기된 경전 외에도, 해당 대목과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내용의 다른 경전을 발취·인용하고 있다.

금씩 다르게 나타나지만, 月釋 권1에 수록된 「釋詳詳節序」의 협주에는 兜率來儀·毘藍降生·四門遊觀·逾城出家·雪山修道·樹下降魔·鹿苑轉法·雙林涅槃으로 되어 있다.

21) 박금자(1997), 73에서는, “석가보는 잘 알려져 있듯이 普羅經, 長阿含經, 因果經 등 여러 경전을 저본으로 하여 만든 것인데, 이 「釋迦降生釋種成佛緣譜」만 하더라도 권1에서도 두 군데로 나뉘어 있고 또한 여러 경전에서 채록한 이야기가 섞여 있어 구성방식이 복잡하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석가강생석종성불연보」는 宋·元·明本에는 권1~5에 걸쳐 수록되어 있다.

22) 이호권(2001), 48은 석보상절이 10권본을 저본으로 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소제목 옆에 ‘卍 普曜經’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5권본의 釋迦降生釋種成佛緣譜 第4를 예로 들어 보이면, 「석가보」 제4는 「보요경」→「서용본기경」→「수행본기경」→「보요경」→「불소행찬」→「대선권경」→「보요경」→「서용본기경」→「수행본기경」→「보요경」→「서용본기경」→「보요경」→「관불삼매해경」→「보요경」 등의 내용과 순서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심 경전인 「보요경」을 중심으로 「태자서용본기경」·「수행본기경」·「관불삼매해경」 등의 경전이 삽입되어 있는 것이다. 釋詳 및 月釋의 저경에 관한 기존의 논의에서는 「석가보」가 저경일 경우, 해당 항목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위의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표 2>에서처럼 「석가보」를 구성하고 있는 경전들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되리라고 본다.

한편, 앞에서 「석가보」는 고려대장경에 수록된 5권본과, 宋·元·明대의 대장경에 수록된 10권본의 2종이 있다고 했는데, 10권본은 고려본 「석가보」 제4의 내용을 증보하여 제2권~5권에 각각 제4之2~4之5를 수록한 것이다. 고려본의 「석가보」 제4가 「보요경」을 중심 경전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10권본은 고려본에는 인용되지 않았던 「과거현재인과경」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몇몇 내용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곧 5권본에는 「인과경」의 내용이 보이지 않으며, 10권본에는 「보요경」의 내용이 인용되기는 해도 간혹 빠진 부분이 있다. <표 2>에서, 「석가보」 제4之2나 3으로 저경을 명시한 내용 가운데, 그 출전이 인과경이 아닌 경우는 5권본의 「석가보」 제4에도 있지만, 「석가보」 제4라고 명기되어 있는 경우는 10권본에 없고 5권본에만 있는 내용인 것이다. 결국, 釋詳 권3의 저경 파악에 있어서는 이 5권본과 10권본의 항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통해 釋詳의 편찬자는 이 두 종류의 「석가보」를 모두 참고하여 釋詳을 편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석가씨보」는 唐의 道宣(596~667)이 「석가보」의 내용을 所依賢劫·氏族根源·所託方土·法王化相·聖凡後胤의 5科로 나누어 서술한 것으로, 「석가보」의 요약본이라 할 수 있다. 「석가씨보」 역시 각 항목의 서술에 있어 인

용 경전을 밝히고 있는데, 「과거현재인과경」의 내용일 경우는 「經云」이라고만 되어 있어, 「석가씨보」는 10권본 「석가보」를 요약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결혼’과 ‘유성출가’의 삽화를 제외한, 대체로 짧은 길이의 삽화들로 구성되어 있는 釋詳 권3에서는 여타의 권차와는 다르게 「석가씨보」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釋詳 권3의 저경이 된 부분은 「법왕화상」 과목의 現生誕靈迹·集藝歷試迹·出家尋教迹의 관련 내용이다. 「석가보」에도 모두 있는 내용이지만, 釋詳의 편찬자는 장황한 「석가보」에 비해 중심 사건 위주로 간명하게 정리되어 있는 「석가씨보」의 관련 내용을 채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위 도표의 저경 항목에 「석가씨보」·「석가보」와 함께 명시되어 있는 「佛本行集經」은, 그 동안 선행 연구에서 밝히지 못한 저경이다. 隋 闍那崛多 역의 「불본행집경」은 총 60권의 방대한 佛傳²³⁾으로, 석존의 전생부터 석존이 출가 성불한 과정, 그리고 전법의 과정에서 만난 제자들의 인연까지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석상 권3에는 권11·권16·권26·권55의 관련 부분이 실려 있다. 「불본행집경」은 불전으로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석가보」에는 그 내용을 찾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이 경전이 「석가보」 편찬 이후인 591년에 번역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釋詳의 편찬자는 「석가보」 편찬 이후에 번역되어 수록되지 못한 「불본행집경」을, 「석가보」 및 「석가씨보」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편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불본행집경」은 釋詳뿐만 아니라 月釋 권4와 「月印千江之曲」 其133~136의 저경이기도 하다.²⁴⁾

지금까지 釋詳 권3의 주요 저경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다음 권차로 넘어가기 전에 저경을 알 수 없는 삽화에 대해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다.

<표 2>에서 저경을 알 수 없다고 명기한 부분 중, ‘결혼’ 삽화의 14-7~14-4

23) 조명화, “중국불교의 전기문학,” 「한국불교학」 제16집(1991), 133-134에서는 “이 불본행집경은 석가모니불에 관한 傳記의인 호기심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고 완벽한 내용이어서 이후로 이보다 더 자세하고 완벽한 내용의 佛傳文學은 나올 수가 없게 되고, 다만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간추려 쓴 불전만이 대중적인 포교를 목적으로 유통하게 되었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24) 「月印千江之曲」 其133~136은 해당 釋詳이나 月釋이 전하지 않지만, 노랫말의 주요 어휘를 통해 「불본행집경」 권59 婆提唎迦等因緣品 下가 그 저경임을 알 수 있다.

와, 35¹-4~36¹-1의 삽화는 비록 저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들과 유사한 내용의 경전을 찾을 수 있다. 곧, 14¹-7~14¹-4의 “㉠天帝釋이 그 사를 싸혀 忉利天에 가아 塔 일어 供養호습더라 ㉡살 든 굼괴셔 식미 나아 우므리 드외니 마시 든 수을 곧더니 ㉢머그면 病이 다 도터라”에서, ㉠과 ㉡은 「불본행집경」 권13 拘術 爭婚品 下 제13에서 비슷한 내용을 볼 수 있다.²⁵⁾ 그리고 ㉢은 「大唐西域記」 권6의 “至池沒羽內涌清流 時俗相傳謂之箭泉 夫有疾病飲沫多愈”²⁶⁾와 유사하다. 물론, 지금 언급한 이 佛典들이 저경이라는 것은 아니다. 어휘 및 구체적인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35¹-4~36¹-1의 경우는 위의 삽화보다는 저경에 가까운 내용을 찾을 수 있다. 곧 아래와 같이 禪宗 史書인 「五燈會元」 권1에서 이와 유사한 내용이 보인다.

(3) 太子 彌樓山 阿藍迦蘭이라 僞 仙人 잇는디 가샤 不用處定을 三年 니기시고 또 鬱頭藍非이라 僞 仙人 잇는디 가샤 非非想處定을 三年 니기고 너기샤디 仙人의 이리 굴근 結이샤 업거니와 죽사리 免僞 道理 아니로다 호샤 버리고 가시니라²⁷⁾ <釋詳3:35¹-4~36¹-1>

(4) 於檀特山中修道 始於阿藍迦藍處 三年 學不用處定 知非便捨 復至鬱頭藍非處 三年 學非非想定 知非亦捨²⁸⁾

(3)은 태자 시절의 석존이 출가하여 두 仙人에게 禪定을 배웠다는 35¹-4~36¹-1의 전문을 옮긴 것이고, (4)는 「오동회원」에서 관련 부분을 인용한 것이다. 이 부분 또한 釋詳의 ‘阿藍迦蘭’이 ‘阿藍迦藍’으로 되어 있고, 釋詳의 “仙人의 이리 굴근 結이샤 업거니와 죽사리 免僞 道理 아니로다”에 해당하는 구절이 없으므로, 저경으로는 볼 수 없을 듯 하다. 그러나, (4) 외에는 (3)과 비슷한 내용을

25) ㉠과 ㉡은 각각 “是太子所射之箭 天帝釋 從虛空中 秉執將向 三十三天 至天主已 爲此箭故 於彼天中 建立箭節 常以吉日 諸天聚集 以諸香華 供養此箭”과, “彼箭入地 至於黃泉 其箭所穿 入地之處 卽成一井”(『대정신수대장경』 제3권, 711上)의 내용과 유사하다.

26) 『大正新修大藏經』 제51권, 902上.

27) 편의상, 협주는 제외하고 본문만을 인용하였다.

28) 『(新纂)大日本大藏經』 제80권, 28下.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비록 저경은 아니더라도 여기에 소개한 것이다. 이 외에, 6-76~6-3과 22-75~24-71은 아직까지 이와 유사한 내용의 경진조차 찾지 못한 상태이다. 후속 연구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

다음으로, 권6·9·11의 구성 및 저경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표 3> 석보상절 권6·9·11의 구성과 저경

| 卷次 | 삽화의 내용 | 張次 | 저경 |
|--------------------------|--|-------------------------------|------------------------------------|
| 권6 | · 象頭山 설법 | 1-72~1-75 | 佛祖統紀 卷3 釋迦牟尼本紀 1-3上 |
| | · 羅睺羅의 출가 | 1-75~10-4 | 釋迦譜 釋迦子羅云出家緣記 第13 【未曾有經】 |
| | | 10-5~11-7 | 佛說未曾有因緣經 卷上 |
| | · 大迦葉의 출가 | 11-7~13-72 | 釋迦氏譜 說法開化迹 度金色大迦葉緣 【因果經】 |
| | · 祇園精舍 건립 | 13-73~40-76 | 釋迦譜 釋迦祇洹精舍緣記 第20 【賢愚經】 |
| | · 勝鬘經 설법 | 40-76~41-73 | 佛祖統紀 卷3 下 釋迦牟尼佛本紀 第1之3下 |
| | · 諸國周遊 설법 | 41-73~44-76 | 佛祖歷代通載 卷3+알수 없음 |
| | · 須達의 석존 髮爪塔 조성 | 44-76~44-6 | 釋迦譜 釋迦髮爪塔緣記 第21 【十頌律】 |
| | · 須達의 죽음 | 44-6~45-1 | 釋迦譜 釋迦祇洹精舍緣記 第20 【雜阿含經】 |
| | · 大集經 설법 | 45-1~47-71 | 聯燈會要 卷1 |
| · 方等 8년,般若 21년 설법에 대한 언급 | 47-71~47-74 | 佛祖歷代通載 卷3 | |
| 권9 | · 약사여래의 12大願 · 약사여래 국토의 장엄상 · 약사여래의 공덕 등 | 1-72~41-74 | 藥師瑠璃光如來本願功德經(唐玄奘 譯) |
| 권11 | · 忉利天爲母 설법 | 1-71~1-76 | 釋迦譜 優填王造釋迦梅檀像記 第23 【增一阿含經】 |
| | | 1-76~3-5 | 釋迦譜 釋迦母摩訶摩耶夫人記 第16 【佛昇忉利天爲母說法經】 |
| | · 地藏經 설법 | 3-5~5-76 | 地藏菩薩本願經(唐 實叉難陀 譯) 忉利天宮神通品 第1 |
| | | 5-76~10-74 | 地藏菩薩本願經 分身集會品 第2 |
| | · 優填王과 波斯匿王의 佛像 造成 | 10-74~10-7 | 釋迦譜 優填王造釋迦梅檀像記 第23 【增一阿含經】 |
| 10-7~11-73 | | 釋迦譜 波斯匿王造釋迦金像記 第24 【增一阿含經】 | |

| | | |
|-----------------------------------|-------------|------------------------------------|
| · 석존의 閻浮提 귀환 | 11-73~13-76 | 釋迦譜 釋迦母摩訶摩耶夫人記 第16 【佛昇忉利天爲母說法經】 |
| · 金像의 佛事 付囑 | 13-76~14-4 | 釋迦譜 優填王造釋迦梅檀像記 第23 【觀佛三昧海經】 |
| · 忍辱太子의 孝養行[본생담] | 14-4~24-75 | 大方便佛報恩經(失譯人名) 卷3 論議品 第5 |
| · 鹿母夫人의 功德行(摩耶夫人이 석존을 낳게 된 전생 인연) | 24-75~43-4 | |

釋詳 권6은 상두산 설법부터 대집경 설법까지의 석존의 轉法에 관한 내용으로, 아들 나후라 및 대가섭의 출가, 그리고 수달장자의 기원정사 건립 이야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저경으로는 「석가보」 釋迦祇洹精舍緣記 제20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석가보」 釋迦子羅云出家緣記 제13·釋迦髮爪塔緣記 제21과 「석가씨보」·「불조역대통재」·「佛祖統紀」 등이 편입되어 있다.

권9는 「藥師經」을 全譯한 것으로, 여러 번역본 가운데 唐 玄奘의 「藥師瑠璃光如來本願功德經」이 그 저경이다. 序分에서는 약사여래의 本願인 12大願을 열거했고, 正宗分은 이 경의 공덕 및 위력과 더불어 약사여래가 일체중생의 病苦를 구제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流通分에서는 12神將과 夜叉神 등의 三寶에 대한 귀의 및 이 경의 流行廣通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 「약사경」은 12대원과 그 공덕 이익을 신봉하고 약사여래의 他力에 의지하는 약사신앙의 소의경전이다.

釋詳 권11은 석존이 釋提桓因의 청으로 忉利天에 가서 어머니인 摩耶부인에게 설법하고 그 곳에 찾아온 지장보살에게 미래 중생의 제도를 부촉했다는 내용과, 도리천에서의 설법을 마치고 염부제로 귀환하는 과정, 그리고 석존과 마야부인의 전생 공덕에 관한 이야기로 되어 있다. 저경에 있어서는 「大方便佛報恩經」 卷3 論議品 第5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地藏菩薩本願經」과 「석가보」 釋迦母摩訶摩耶夫人記 제16·優填王造釋迦梅檀像記 제23·波斯匿王造釋迦金像記 제24가 편입되어 있다. 「약사경」이나 「法華經」 같은 단일 경전을 저본으로 하고 있지 않는 釋詳의 현전본 중에서, 삽화들의 저경이 모두 확인되는 권차는 이 釋詳 권11이 유일한 예에 속한다.²⁹⁾

권11의 중심 저경인 「대방편불보은경」은 7권 9품으로 된 譯者 未詳의 경전으로, 석존이 大方便으로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고 惡友를 사랑하며 慈善을 행하는 것 등에 대해 설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序品 第1과 孝養品 第2를 제외하고는 각 품의 내용이 서로 연결이 되지 않아 마치 여러 경전을 모아 놓은 것 같다. 이 경전은 현전 釋詳과 月釋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佛典 중에서 「석가보」와 「법화경」 다음으로 그 분량 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出家者 보다는 在家者들의 세속생활과 관련이 있는 경전의 내용에 기인한 듯 하다.

중국 唐의 實叉難陀가 번역한 1권 13품의 「지장보살본원경」은 줄여서 「지장경」이라고도 하는데, 切利天宮神通品 第1과 分身集會品 第2의 두 품만이 抄錄되어 있다. 지장보살의 본생·본원·공덕과 지옥의 종류 및 고통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 경전은, 특히 중생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地獄苦를 통해 나타내 보이고 아울러 그들을 구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로 懺悔業障과 罪業消滅을 위한 목적으로 신앙되었다.

이상, 釋詳 권6·9·11을 구성하고 있는 저경의 내용 및 성격에 대해 대략적으로나마 살펴보았는데, 권6에 대해서는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경을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한 필자가 새로 찾은 저경이 있기 때문이다.

釋詳 권6의 「나후라의 출가」 삽화 중, 101-5~111-7은 「석가보」 제13에 없는 내용²⁹⁾으로, 釋曇景 譯의 「佛說未曾有因緣經」 권상이 저경이다. 그런데, 이 「미증유인연경」은 「석가보」 제13의 소제목에 병기된 「미증유경」과 이름만 다를 뿐, 같은 경전이다. 단권본의 「미증유경」이란 경전이 따로 있지만, 승우는 상·하의 두 권으로 된 「미증유인연경」을 「미증유경」으로 약칭한 것이다. 결국, 釋詳의 편자는 나후라의 출가에 관한 이야기만을 수록하고 있는 「석가보」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여겨, 「석가보」 제13의 출전에서 직접 출가 이후의 이야기를 옮겨온 것이라 하겠다.³⁰⁾ 釋詳의 편자는 5권본과 10권본 2종의 「석가보」뿐만 아니라, 「석

29) 釋詳 권23의 경우는 앞에서 살펴본 듯이 낙장된 제1·2장의 저경을 확신할 수 없으므로 제외된 것이다.

30) 이호권(2001), 52와 박근자(1997), 117은 「석가보」 釋迦子羅云出家緣記 第13을 그 저경으로 보았다.

가보」를 구성하고 있는 경전의 내용까지 검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권6의 ‘대집경 설법’ 또한 기존의 논의에서는 「아함경」이나 「석가보」 등으로 그 저경을 파악했으나,³²⁾ 사실은 아래의 인용문처럼 禪宗 史書인 「聯燈會要」 권1의 내용을 옮긴 것이다.³³⁾

(5) 世尊이 聖衆들 드리시고 欲界 色界 두 하늘 스미에 가샤 大集等經을 니르디시니 出舍訖샤디 人間이며 天上이며 一切 모든 곳거시 다 모다 부텃 付囑을 드리 正法을 護持호라 호다가 아니 오리 잇거든 四天王이 더본 鐵輪을 놓여보내야 다조차 자바오라 호시니 그리 다 모다 부텃 教授 들즈바 各各 큰 盟誓호야 正法을 護持호리이다 호거늘 오직 魔王이 世尊의 舍보다 瞿曇아 나는 一切 衆生이 다 부테 드외야 衆生이 업거샤 菩提心을 發호리라 호더라
<釋詳6:45ㄴ1~47ㄴ1>

(6) 世尊將諸聖衆 往第六天 說大集經 勸他方此土 人間天上 一切 嚱惡鬼神 悉皆集會 受佛付囑 擁護正法 設有不赴者 四天王 飛熱鐵輪 追之令集 既集會已 無有不順佛勸者 各發弘誓擁護正法 唯有 魔王 謂世尊云 瞿曇 我待一切衆生 成佛盡 衆生界空 無有衆生名字 我乃發菩提心³⁴⁾

(5)는 ‘대집경 설법’ 삽화의 전문을 인용한 것이고, (6)은 「연등회요」 권1의 관련 부분을 옮긴 것이다. 이를 통해, (5)는 (6)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번역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저경을 알 수 없는 부분은 41ㄴ3~44ㄴ6의 ‘諸國周遊 설법’ 삽화 중, 43ㄴ1~44ㄴ6³⁵⁾의 내용이다. 43ㄴ1 이전의 내용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元

31) 참고로, 10ㄴ5~11ㄴ7에 해당하는 저경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羅喉幼稚 習樂傲慢 耽著嬉戲 不樂聽法 佛數告勸 恒不從用 非可如何…(中略)… 佛告羅雲 萬物無常 身亦難保 汝能保命 至年八十”(「大正新修大藏經」 제17권, 576ㄴ1-下)

32) 박급자는 아함경으로, 이호권은 ‘釋迦譜 釋迦髮爪塔緣記 第21 외’로 명기하였다.

33) 앞에서 언급한 「오등회요」 권1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편찬 연대가 앞선 「연등회요」를 그 저경으로 내세웠다.

34) 「(新纂)大日本大藏經」 제79권, 13下.

35)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難陀龍王宮 寶樓 中에 거샤 大雲輪請雨經을 니르시며 楞伽頂에 가샤 楞伽山經을 니르시며 補陀巖에 가샤 十一面觀自在經을 니르디시다”. 편의상, 연대가 명시되어 있는 협주는 생략하였다.

의 念尙이 찬집한 「佛祖歷代通載」 권4와 그 연대 표시를 포함해 거의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³⁶⁾ 「불조역대통재」는 그 서명이 보여주고 있듯, 중국 禪宗의 祖師들을 중심으로 불교의 역사를 서술한 편년체의 史書이다. 4371~4476의 내용은 이 「불조역대통재」 및, 宋의 志盤이 천태종의 입장에서 편찬한 불교사서인 「佛祖統紀」에도 보이지 않는다. 곧 현재의 상태에서는 그 저경을 알 수 없고, 이 또한 후속 연구를 기다려야 할 듯 하다.

<표 4> 석보상절 권13:19:20:21의 구성과 저경

| 卷次 | 삽화의 내용 | 張次 | 저경 |
|-----|----------------|-----------|---|
| 권13 | · 序品 第1 | 172~3773 | 妙法蓮華經要解(宋 戒環, 姚秦 鳩摩羅什 譯의 妙法蓮華經에 대한 註釋書) |
| | · 方便品 第2 | 3773~6376 | |
| 권19 | · 隨喜功德品 第18 | 172~876 | |
| | · 法師功德品 第19 | 877~2674 | |
| | · 常不輕菩薩品 第20 | 2675~3775 | |
| | · 如來神力品 第21 | 3776~4473 | |
| 권20 | · 囑累品 第22 | 2711~574 | |
| | · 藥王菩薩本事品 第23 | 575~3273 | |
| | · 妙音菩薩品 第24 | 3274~5371 | |
| 권21 | · 觀世音菩薩普門品 第25 | 17~2078 | |
| | · 陀羅尼品 第26 | 2171~3373 | |
| | · 妙莊嚴王本事品 第27 | 3374~4974 | |
| | · 普賢菩薩勸發品 第28 | 4975~6378 | |

釋詳 권13과 권19~21의 네 권은, 鳩摩羅什 譯의 「妙法蓮華經」에 대한 주석서인 宋 戒環의 「妙法蓮華經要解」를 그 저경으로 하고 있다. 이 책은 7권 28품으로, 고려 高宗代의 현존 最古本으로부터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서 開板된 모든 「법화경」의 대본으로 쓰였다.³⁷⁾ 권13이 서품 第1로 시작되고, 권21이 마지막 품으로 끝나고 있으므로, 현재 전하지 않는 권차까지 포함하면 총 9권

36)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기중, “월인천강지곡의 배경과 구성방식 연구”, 「불교어문논집」 제4집(1999.12), 196-197 참조.

37) 고익진, “法華經 戒環解의 盛行來歷考”, 「불교학보」 제12집(1975), 172.

이 「법화경」의 내용인 셈이다. 앞에서 살펴본 「지장경」·「대방편불보은경」 등의 저경들이 전체 내용 중, 釋詳의 서사 전개에 필요한 부분만 채택되고 있음을 떠올린다면 이러한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법화경」이 釋詳 전체 권수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釋詳의 편찬 동기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곧 「법화경」은 “朝鮮之初 凡迫薦亡靈者 必用法華經”³⁸⁾이라는 언급이 있을 정도로 迫善을 위한 목적으로 가장 널리 쓰였던 경전이기 때문이다. 소헌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조성된 석존의 일대기인 釋詳에 이러한 「법화경」의 全品이 수록된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물론, 「법화경」이 迫善을 위한 경전으로 쓰이게 된 이유가 「법화경」의 ‘一佛乘’ 사상 곧, 모든 중생은 다 성불할 수 있다는 가르침³⁹⁾에 기인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이제, 마지막으로 釋詳 권23과 권24의 내용 및 저경을 살펴볼 차례다.

<표 5> 석보상절 권23-24의 구성과 저경

| 卷次 | 삽화의 내용 | 張次 | 저경 |
|-----|--------------------|-------------|-------------------------------|
| 권23 | · 臨終遺教 | 3-11~12-2 | 大般涅槃經後分(唐 若那跋陀羅 譯) 遺教品 第1 |
| | | 12-2~13-3 | 釋迦譜 釋迦雙樹般涅槃記 第27 【雙卷大般泥洹經】 |
| | · 般涅槃과 일체대중의 반응 | 13-3~22-14 | 大般涅槃經後分 應真還源品 第2 |
| | · 석존 열반 당시의 중국 상황 | 22-14~22-6 | 法苑珠林 卷12 千佛篇 第5【破邪論】 |
| | · 茶毘 준비(석존의 入棺) | 22-6~26-14 | 大般涅槃經後分 機感茶毘品 第3 |
| | · 佛母散花 | 26-14~36-5 | 釋迦譜 釋迦雙樹般涅槃記 第27 【摩耶經】 |
| | · 聖火自焚(석존의 茶毘) | 36-5~44-11 | 大般涅槃經後分 機感茶毘品 第3 |
| | | 44-11~45-11 | 釋迦譜 釋迦雙樹般涅槃記 第27 【僧祐의 論評】 |
| | | 45-11~47-17 | 大般涅槃經後分 機感茶毘品 第3 |
| | · 석존의 사리를 拘尸城에 안치함 | 47-17~52-15 | 大般涅槃經後分 聖軀廓潤品 第4 |

38) 이능화, 「朝鮮佛教通史 下」(서울: 신문관, 1918), 561.

39) 平川彰, “대승불교에 있어서의 법화경의 위치”, 「법화사상」(서울: 경서원, 1997), 27.

| | | | |
|---------------------|---|-------------------------------------|---|
| | · 諸王· 諸天· 용왕의 均分舍利 | 52-16~54-3 | 釋迦譜 釋迦八國分舍利記 第28 【泥洹經】 |
| | | 54-3~56-6 | 釋迦譜 釋迦天上龍宮舍利寶塔記 第29 【菩薩處胎經】 |
| | · 難頭不龍王의 수정유리탑 조성 | 56-6~58-17 | 釋迦譜 釋迦龍宮佛髻塔記 第30 【阿育王經】 |
| | · 사리탑 공양 | 58-17~59-1 | 釋迦譜 釋迦八國分舍利記 第28 【雙卷人般泥洹經】 |
| 권24 | · 法藏 結集 | 1-1~3-4 | 알 수 없음 |
| | | 3-4~4-16 | 祖堂集 卷1 【七事記】 |
| | · 迦葉· 阿難의 正法 傳持와 人滅 | 4-16~7-17 | 알 수 없음 |
| | · 阿育王의 前生과 석존이 8만 4천탑 공양을 받게 된 인연 | 7-18~8-18 | 釋迦譜 釋迦獲八萬四千塔宿緣記 第32 【賢愚經】 |
| | | 8-18~9-5 | 釋迦譜 阿育王造八萬四千塔記 第31 【雜阿含經】 |
| | | 9-6~11-14 | 釋迦譜 釋迦獲八萬四千塔宿緣記 第32 【賢愚經】 |
| | | 11-15~11-16 | 釋迦譜 阿育王造八萬四千塔記 第31 【雜阿含經】 |
| | · 아육왕의 즉위 과정 | 11-16~13-14 | 釋迦譜 阿育王造八萬四千塔記 第31 【雜阿含經】 |
| | · 아육왕의 佛法 귀의 | 13-14~23-17 | 釋迦譜 阿育王造八萬四千塔記 第31 【雜阿含經· 阿育王傳· 譬喻經】 |
| | · 8만 4천 사리탑 조성 | 23-17~25-6 | 釋迦譜 阿育王造八萬四千塔記 第31 【雜阿含經】 |
| | · 阿育王의 아우 善容의 出家 | 25-6~30-13 | 釋迦譜 阿育王弟出家造釋迦石像記 第25 【求離牢獄經】 |
| | · 龍王의 水精塔 조성 | 30-13~32-14 | 釋迦譜 釋迦龍宮佛髻塔記 第30 【阿育王經】 |
| | · 8만 4천 사리탑에 幡을 달음(續命幡 이야기) | 32-14~32-6 | 釋迦譜 阿育王造八萬四千塔記 第31 【迦葉語阿難經】 |
| | · 석존 설법처의 塔廟 건립과 대제자의 사리탑 공양 | 32-6~41-15 | 釋迦譜 阿育王造八萬四千塔記 第31 【雜阿含經】 |
| | ·菩提樹와 僧衆 공양 | 41-15~48-7 | |
| | · 태자 法益 이야기 | 48-8~52-6 | 釋迦譜 阿育王造八萬四千塔記 第31 【法益經】 |
| 52-6~52-8 *이하 낙장 | | 釋迦譜 阿育王造八萬四千塔記 第31 【阿育王息法益壞日因緣經】 | |

釋詳 권23은 석존이 열반 직전에 행한 설법과, 반열반과 다비식을 걸쳐 수습된 사리를 나누고 사리탑을 조성하기까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大般涅槃經後分」이 저경의 중심을 이루고 있고, 그 외에 「法苑珠林」과 「석가보」 釋迦雙樹般涅槃記 제27·釋迦八國分舍利記 제28·釋迦天上龍宮舍利寶塔記 제29·釋迦龍宮佛髻塔記 제30이 편입되어 있다. 낙장된 제1·2장을 제외하고는, 삽화의 저경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唐의 若那跋陀羅가 번역한 「대반열반경후분」은 그 제목이 보여주듯 曇無讖역의 「大般涅槃經」에 없는 석존 입멸 이후의 이야기로 되어 있다. 상·하의 두 권으로 된 이 경전은, 상권에 橋陳如品之餘·遺教品 第1·應眞還源品 第2가 있고, 하권에 機感茶毘品 第3과 聖軀廓潤品 第4가 들어 있다. 釋詳 권23에는 橋陳如品之餘를 제외한 舍品이 수록되어 있다. ‘교진여품지여’는 이름 그대로 「대반열반경」의 마지막 품인 교진여품의 나머지 부분이다.

釋詳 권24는 석존 일대기의 後日譚으로, 석존의 제자인 가섭과 아난에 의해 法藏이 결집되고 正法이 傳持되는 내용과, 아육왕이 8만 4천 사리탑을 조성하고 僧衆을 공양하는 등 佛法을 弘布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중, 아육왕에 관한 부분은 위의 도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佛法의 弘布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아육왕의 전생과 즉위 과정뿐만 아니라, 아육왕의 동생과 태자에 관한 이야기까지 포함하고 있어, 아육왕 일대기의 성격을 띠고 있다. 저경에 있어서는, 「석가보」 阿育王造八萬四千塔記 제31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그 외에 阿育王弟出家造釋迦石像記 제25·釋迦龍宮佛髻塔記 제30·釋迦獲八萬四千塔宿緣記 제32 등이 편입되어 있다.

끝으로, 저경을 알 수 없는 삽화에 대해 잠시 살펴보면, 먼저 476~774의 가섭의 정법 전지에 관한 삽화는 저경을 찾을 수 없다. 다만, 禪史인 「傳法正宗記」 권2에서 이와 유사한 내용을 볼 수 있을 뿐이다.⁴⁰⁾ 그리고, 17~476의 ‘법장결

40) 지면 관계 상, 476~774의 내용은 생략하고 대신, 후속 연구를 위해 「전법정종기」의 관련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復念 如來舍利皆在諸天 欲往辭之 遽陵虛遍至塔廟 禮已而還 復以夙約必別於阿闍世王 及至其門會王方寢 因謂闍者曰 摩訶迦葉將入定雞足山 故來相別 王起奏之 … 乃語曰 若阿闍世王與阿難偕來 汝當爲開去已復合 於是寂然乃入滅盡

집' 삽화 중, 31-4~476의 내용은 다행히 그 저경을 확인할 수 있는데, 釋詳과 저경의 관련 부분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7) 阿難이 座에 올라왔거늘 모뎡는 사르미 疑心을 세가지로 호더 혼 疑心은 부테 아니 다시 나신가 호고 또 혼 疑心은 다른 世界엿 부테 아니 오신가 호고 또 혼 疑心은 阿難이 호마 부테 드원가 호더니 阿難이 닐오더 如是我聞이라 호니 모든 疑心이 다 흰히 업스니라 <釋詳243-4~474>

(8) 阿難當昇座已 尊諸相好 現身如佛 衆見此瑞 則生三疑 一謂大師慈悲故從涅槃起 爲我等輩宣甚深法 二謂他方諸佛如來我釋迦奄化故 而來此中宣揚妙法 三謂阿難轉身成佛爲衆說法耶 爾時 阿難而說是言 如是我聞 一時佛住某城某處說某經教 乃至人大等 作禮奉行 阿難則下法座 欲復本身 諸菩薩等 知是世尊加被 衆疑悉遣⁴¹⁾

위의 (7)은 범장 결집에 관한 삽화의 끝 부분이고, (8)은 이와 유사한 내용을 보이는 「祖堂集」 권1에서 인용한 것이다. 釋詳이 저경의 내용을 축약하거나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8)은 저경으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그런데, (7)은 月釋 권25의 10-3~11-7⁴²⁾와도 거의 일치하므로, 「景德傳燈錄」에 없는 이 부분에 대한 月釋의 저경 역시 (8)의 「조당집」 권1이라고 할 수 있다.⁴³⁾

이상, 현전본 釋詳 각 권차의 구성 및 저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불분행집경」·「미증유인연경」·「연등회요」·「조당집」 등의 새로운 저경을 찾았으며, 이 경전들 중의 일부는 釋詳뿐만 아니라 月釋 및 「月印千江之曲」의 저경으

定 是時大地爲之動 而阿闍世王亦夢 其殿梁忽折 …王聞此而敬之益勤 及王與阿難引去 而其山合如故”(「大正新修大藏經」 제51권, 719中-下)

41) 「佛光大藏經」 第15冊, 35.

42) 참고로, 月釋 권25의 10-3~11-7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처엄 座에 오르거늘 한 사르미 세 疑心을 호니 호나혼 부테 다시 나신가 호고 들흔 他方佛이 오신가 호고 세흔 阿難이 成佛한가 호더니 如是我聞이라 호야놀 한 疑心이 다 프리디니라”

43) 강순애, “새로 발견된 初塲本 월인석보 권25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16집(1998. 12), 107에서는 月釋 권25 9-1~11-7의 저경을 「경덕전등록」 권1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10-3~11-7은 「경덕전등록」 권1에 없는 내용이다.

로도 쓰였음을 지적하였다. 저경을 찾지 못한 삽화의 경우는 후속 연구를 위해 그와 유사한 경전의 내용을 제시하였고, 또한 가능한 범위에서 낙장된 장차의 저경에 대한 추정을 시도하였다. 한편, 주요 저경의 내용과 성격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 「석가보」는 5권본인 고려본과 10권본인 송·원·명본의 두 종이 있으며, 「釋迦降生釋種成佛緣譜」 항목은 5권본과 10권본에 따라 그 인용 경전 및 내용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3. 석보상절의 저경 수용 양상과 그 의미

이 장에서는 여러 경전으로 구성되어 있는 釋詳을 중심으로 저경의 수용 양상과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⁴⁴⁾ 여기에서의 ‘저경 수용 양상’은 저경에 대한 釋詳 편자의 번역 태도가 아니라, 하나의 삽화 안에 여러 경전이 조직·구성되어 있는 양상을 뜻한다.

먼저, 권11을 예로 들어 釋詳의 전체적인 저경 수용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논의의 편의상, 권11의 삽화 전개 양상을 그 저경과 함께 2장의 <표 3>에서 옮겨오면 다음과 같다.

(9) ㉠初利大爲母 설법→ ㉡地藏經 설법→ ㉢優填王과 波斯匿王의 佛像 造成→ ㉣석존의 閻浮提 귀환→ ㉤金像의 佛事 付囑→ ㉥七寶塔이 땅에서 솟아나옴→ ㉦忍辱太子의 孝養行→ ㉧鹿母夫人의 功德行

(10) ㉡釋迦譜 第23+釋迦譜 第16→ ㉢地藏經→ ㉣釋迦譜 第23+釋迦譜 第24→ ㉤釋迦譜 第16→ ㉥釋迦譜 第23→ ㉦·㉧·㉨大方便佛報恩經 論議品 第5

(9)는 釋詳 권11을 구성하고 있는 삽화들을 그 순서대로 제시한 것이고, (10)은 각 삽화의 저경을 옮긴 것이다. 위의 (9)와 (10)을 통해, 「지장경」을 제외한

44) 권9와 권13 등 하나의 경전으로 구성된 釋詳의 저경 수용 양상은 논고를 달리하여 다룰 예정이므로, 본고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저경들의 내용이 각각의 삽화에 분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석가보」 제16과 제23의 내용은 각각 ㉠·㉡와 ㉢·㉣·㉤에 실려 있고, ㉥~㉦의 삽화는 「대방편불보은경」 논의품 제5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석가보」釋迦母摩訶摩耶夫人記 제16은 「佛昇忉利天爲母說法經」이 그 출전으로, 석존이 도리천에서 어머니에게 설법했다는 내용과 석존이 설법을 마치고 염부제로 돌아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저경의 내용이 분리되어 전자는 삽화 ㉠忉利天爲母 설법을, 후자는 ㉡석존의 閻浮提 귀환 삽화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석가보」優填王造釋迦梅檀像記 제23은 우전왕이 佛像을 조성했다는 내용의 「增一阿含經」聽法品 第36이 출전인 삽화와, 석존이 불상에게 후세의 佛事를 부탁했다는 내용의 「觀佛三昧海經」觀四威儀品 第6이 출전인 삽화로 되어 있다. 이 삽화들은 각각 ㉥優填王과 波斯匿王의 佛像 造成과 ㉦金像의 佛事 付囑에 편입되어 있다.

그리고 「증일아함경」 출전의 내용 중, 「석가보」 제23의 도입 부분인 “釋提桓因請佛 至三十三天爲母說法 世尊念四部之衆 多有懈怠皆不聽法 我今使四衆渴仰於法 不令四衆復不將侍者 如屈申臂頃 至三十三天”⁴⁵⁾의 구절은 삽화 ㉣의 1~16에 “釋提桓因이 부텃고 請호스보디 忉利天의 가샤 어마님 위호샤 說法호쇼셔 世尊이 사롬 아니 알외샤 호오샤 忉利天에 가샤”로 축약되어 실려 있다. 「대방편불보은경」 논의품 제5의 경우는, 그 내용이 저경의 순서대로 삽화 ㉥~㉦에 수록되어 있다.

결국, 釋詳 권11은 석존의 도리천 설법이 주된 내용이거나 배경으로 되어 있는 위 저경의 삽화들을 그 시간적 순서에 따라 분리하여 전체적인 문맥에 맞게 재배열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저경 수용의 양상은 권11뿐만 아니라 여러 경전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타의 권차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한편, 釋詳의 삽화는 대체로 하나의 저경으로 이루어지지만, 위의 권11과 釋詳 권3·권24 등에서는 하나 이상의 저경으로 구성된 삽화들을 볼 수 있다. 이에, 하나의 삽화 안에 여러 저경이 구성되어 있는 구체적인 양상을 보이면 아래

45) 「大正新修大藏經」 제50권, 66下.

와 같다.

(11) ①아래 부테 阿難이 더브르시고 舍衛城의 드르샤 乞食하더시니 …(중략)… 毗閻耶 | 깃거 부텨 알피 굽거늘 閻耶 | 毗閻耶의 엇게에 올라 부터피 받스본대 부테 구브샤 바리로 바다시놀 ②毗閻耶 | 舍掌하야 조차 깃스바 하더라 그저피 閻耶 | 發願을 하야 슬보더 오늘 布施하스본 善根功德으로 後生에 혼 天下를 어더 繼蓋 바틸 王이 드의야 諸佛을 供養하스바지이다 …(중략)… 들히 闍浮提를 가져 三寶를 供養하며 正法으로 다스리며 내 舍利로 八萬四千塔을 세리라 阿難아 이 바리엣 물에를 내 들니는 짜해 쓰라라 ③阿難이 다시 묻스본대 世尊이 아래 므슴 功德을 하시관디 이런 한 塔을 世尊 위 하스바 이르스본리잇고 如來 니르샤디 …(중략)… 波塞奇王이 綵色 마초야 손쇼 혼 像을 그리스바 내야늘 畫師들히 그 像을 模하야 八萬四千 像을 그리스바 八萬四千 나라홀 곁오 돌아 供養하습게 하니 波塞奇王이 이젯 내 모미니 그리흔 因緣으로 八萬四千塔을 어드리라 ④阿難이 그 바리엣 물에를 如來 들니시는 짜해 쓰니라 <釋詳24:7-18~11-16>

위의 (11)은 釋詳 권24 중, 아육왕의 전생에 관한 삽화의 전문을 인용한 것이다. 인용문의 ①·② 등의 표시는 이 삽화의 저경이 같지 않음을 나타낸 것인데, ①과 ③ 부분의 저경은 「석가보」 釋迦獲八萬四千塔宿緣記 제32이고, ②와 ④는 「석가보」 阿育王造八萬四千塔記 제31이 저경이다. 「석가보」의 이 두 항목은 그 소제목이 암시하듯, 아육왕의 8만 4천 사리탑 조성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각각 석존과 아육왕의 입장에서 서술한 것으로, 그 출전 또한 「賢愚經」과 「雜阿舍經」으로 다르다.

「석가보」 제32는 석존이 8만 4천 사리탑 공양을 받게 된 과거의 인연에 중점을 둔 반면, 「석가보」 제31은 아육왕이 사리탑을 공양하게 된 인연에 비중을 둔 것이다. 그리하여, 「석가보」 제31에는 석존의 사리탑 공양과 관련된 본생담이 없고, 「석가보」 제32에는 아육왕의 前身인 閻耶의 발원 내용이 없다. 이러한 「석가보」 제31과 제32의 내용으로 인해, 釋詳의 편자는 둘 중 어느 하나를 저경으로 선택하지 않고, 대신 두 저경의 내용을 문맥에 맞게 배열하여 위의 (11)로 재구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석가보」 제31과 제32의 상이한 어휘를 일치시키고, 저경이

바뀌는 대목을 연결어미로 처리하였다. 곧 「석가보」 제32의 ‘一小兒」를 「석가보」 제31의 ‘闍耶’와 ‘毗闍耶’에 일치시킨 것과, ①의 “부테 구브샤 바리로 바다시닐”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한 삽화 안에서의 저경 수용 양상은 현전 釋詳의 여러 삽화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하나의 삽화 안에 「석가보」와 「석가씨보」가 함께 수용되어 있는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12) ①太子 | 바미 王宮에 드르시니 光明이 두루 비취디시니 王의 슬보사 디 出家호고져 호노이다 ①王이 손목 자바 울며 니르샤디 이 므슴 먹디 말라 나라해 니스리 업스니라 ②太子 | 니르샤디 네 가짓 願을 일우고져 호노니 늘굼 모르며 病 업스며 주굼 모르며 여희음 모르고져 호노이다 王이 더욱 슬허 니르샤디 이 네 가짓 願은 네록브터 일우니 업스니라 호시고 이튼나래 釋種사 中에 勇猛호니 五百을 모도아 門 구디 자브라 호시니라 <釋詳3:217-2~21-8>

(13) ①(卽時靜)夜入王宮殿 光明照遠近 (其父覺起) 啓父王言 (諸天勸助) 今應出家 (父王悲泣 何所志願 何時當還) ②菩薩言 欲得四願 一者不老 二者無病 三者不死 四者不別 (假使父王與此四願 不復出家) 王聞重悲 此四願者古今無獲 明且卽勒五百釋男多力者宿衛菩薩 四門城開閉聲聞四十里46)

(12)는 태자 시절의 석존이 四門遊觀 뒤, 정반왕에게 출가 결심을 말하는 대목이고, (13)은 저경인 「석가보」 제4의 관련 부분을 인용한 것이다.47) 괄호 안의 구절을 제외하면 (12)는 (13)의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2)의 밑줄 친 ①은 저경인 (13)에 보이지 않는다. (13)의 ‘父王悲泣 何所志願 何時當還’은 정반왕이 울었다는 사실만 같을 뿐, 태자의 후사에 대해 정반왕이 걱정했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으므로 ①의 저경이 아닌 것이다. 이 ①의 내용은 「석가씨보」의 관련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석가씨보」 出家尋教迹 啓出家相

46) 「大正新修大藏經」 제50권, 7上.

47) 10권본의 「석가보」 제4-2에도 이와 같은 내용(「大正新修大藏經」 제50권, 23下)이 있다. 그러나, 「석가보」 제4-2에는 “卽時靜夜入王宮殿 光明照遠近 其父覺起 啓父王言 諸天勸助 今應出家 父王悲泣 何所志願 何時當還”의 내용이 없어, 5권본의 「석가보」 제4가 그 저경임을 알 수 있다

의 “王執其手流淚言曰 宜息此懷國未有嗣”⁴⁸⁾이 그것이다.

이렇듯, (12)가 「석가씨보」의 한 구절만을 「석가보」의 내용 사이에 삽입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삽화와의 관계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곧 釋詳 권3에서 (12)의 삽화는 ‘羅雲의 잉태’ 삽화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석가보」의 ‘父王悲泣 何所志願 何時當還’ 보다는 정반왕이 후사를 걱정하는 「석가씨보」의 ㉠이 내용 전개상 더욱 자연스럽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釋詳의 편자는 저경의 수용에 있어서 한 삽화 안의 문맥뿐만 아니라, 다른 삽화와의 관계 또한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하나의 삽화 안에 「석가보」·「석가씨보」·「불본행집경」 등의 저경이 수용되어 있는 양상을 살펴보겠다.

(14) ①太子 | 粥 좌신 後에 양지 네 곶 ㅎ거시늘 橋陳如들 다숫 사르미 보습고 修行이 늘의삿다 너겨 다 제 잇던디 도라 니겨늘 菩薩이 ㅎ오사 畢鉢羅樹로 가더시니 德 重 ㅎ실씩 地動 ㅎ며 五百 靑새 圍繞 ㅎ스바 놀며 瑞雲香風이 섰버브러 잇더니 눈 먼 龍도 누니 吽 祥瑞 보습고 讚嘆 ㅎ스르며 ② ㅎ 迦茶 | 라 龍이 長壽 ㅎ야 아래 세 부덧 成道를 보스바 잇더니 眷屬 드리고 香花 | 며 풍뽀며 幡이며 蓋며 가져 나아 供養 ㅎ습거늘 諸天이 문져 하늬 幡과 蓋와 가져다가 즈게 우희 드라 보람 두니라 ③ 西天 ㅅ 法에 모로매 프를 쥘오 안찌니 天帝釋이 사르미 드외야 孔雀의 목 빛 ㅅ ㅅ 프를 뷔어 가거늘 菩薩이 일호를 무르신대 對答 ㅎ스보더 吉祥이로이다 ㅎ고 그 프를 받즈바늘 菩薩이 바다다가 쓰르시니 싸히 ㅅ 장 드러치더라 <釋譜3:41 ㄱ6~43 ㄱ4>

석존이 장자 딸의 우유죽 공양을 받고 나서 정각을 얻기 위해 畢鉢羅樹 아래에 앉았다는 내용의 (14)는 세 가지 저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14)의 ①은 「석가씨보」 出家尋教迹 浴身受食相의 내용이고, ②는 「불본행집경」 권26 向菩提樹品 中 제26이 그 저경이며, ③의 저경은 10권본 「석가보」의 釋迦降生釋種成佛緣譜 제4-3이다. ①과 ③의 저경은 모두 「과거현제인과경」이 출전으로, 「석가씨보」의 ①은 「석가보」 제4-3에서 ③의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釋詳의 편자는 다소 장황한 「석가보」의 관련 부분 대신 이를 축약한 「석가씨보」의 내용을 옮겨온 것이라 할 수 있다.

48) 「大正新修大藏經」 제50권, 90下.

①의 밑줄 친 구절은 저경의 “盲龍得眼見瑞讚頌 五百青雀左繞飛空 瑞雲香風交相映拂”⁴⁹⁾과 그 순서가 조금 다르다. 「석가씨보」의 ‘盲龍得眼見瑞讚頌’이 ①에서는 맨 뒤로 옮겨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절의 재배치는 저경이 다른 ②의 내용을 고려한 결과인 듯하다. 저경이 다름으로 인한 내용 전개 of 어색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②의 첫 구절인 ‘迦茶龍’과 유사한 용 관련 구절을 가깝게 배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14)에서는 이 외에도, 앞서 살펴본 (11)의 경우처럼 자연스러운 내용 전개를 위해 저경이 바뀌는 대목의 마지막 구절을 연결어미로 처리하고 있다.

이상, 하나의 삽화 안에 여러 저경이 수용되어 있는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釋詳의 편자는 어휘의 일치, 연결어미의 사용, 구절의 재배치 등을 통해 여러 경전의 수용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맥의 단절을 최소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위의 인용문 (14)는 ③의 저경인 「석가보」 제4之3에 모두 있는 내용이다. 물론, 「석가보」에는 過去佛의 成佛을 목격했던 눈 먼 용이 석존을 공양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과거불의 成道를 지켜보았던 迦茶龍이 그 권속들과 함께 석존을 공양했다는 「불본행집경」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이 두 저경의 내용이 석존 성불의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곧 「석가보」의 내용이 ①과 ③ 사이에 삽입된다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이다. 「석가보」 제31·제32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11)의 경우 또한, 이들 중의 한 항목만으로 삽화를 구성하더라도 釋詳 권24의 전체 문맥에 큰 지장은 없을 듯 하다.⁵⁰⁾

이와 같이, 釋詳이 하나의 저경으로 하나의 삽화를 구성할 수 있음에도, 굳이 여러 경전의 내용으로 삽화를 구성하고 있는 데에는, 앞에서 살펴본 이유 외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한다. 그 이유는 釋詳의 편찬 목적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釋詳 및 月釋의 편찬 목적·과정 등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는 御製月印釋譜序

49) 「大正新修大藏經」 제50권, 91下.

50) 釋詳 권24와 저경 및 내용이 대응되는 月釋 권25는, 「석가보」 제31의 내용을 본문에 수록하고 「석가보」 제32의 내용은 협주로 처리하였다.

에는, “迫薦에 轉經만한 것이 없으니 네가 釋譜를 만들어 번역함이 마땅하다”⁵¹⁾ 라는 세종의 언급이 소개되어 있다. 이 언급은 釋詳의 편찬 목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轉經’은 轉讀으로, 經文의 전체 내용을 모두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주요 대목만을 골라 읽는 것을 뜻한다. 한정된 시간 안에 되도록 많은 경전을 읽어 공덕을 짓기 위해 그 주요 대목만을 읽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세종실록」의 기사에는 소헌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한 寫經佛事가 이루어져 寫經된 佛經이 완성되고 그 佛經들에 대한 두 차례의 轉經法會가 베풀어졌다는 내용이 보인다.⁵²⁾ 그리고 전경법회가 끝난 지 약 두 달 뒤인 12월 2일 條에는 “命副司直金守溫增修釋迦譜”라는 기사가 있다.⁵³⁾ 轉經法會가 있는 지 얼마 안되어 釋詳의 편찬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세종의 언급대로 釋詳이 轉經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추정이 가능하다. 곧 세종이 소헌왕후의 추천을 위한 轉經法會를 통해, 여러 경전을 펼쳐놓고 직접 주요 대목을 골라 읽는 轉經 방식의 불편함을 목격한 뒤, 하나의 책으로도 轉經이 가능한 대본을 만들어 이후의 추천의식에 사용할 목적으로 釋詳의 편찬을 命하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釋詳의 편찬은 한 경전의 내용으로 하나의 삽화를 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맥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되도록 많은 경전의 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이라 할 수 있다.⁵⁴⁾

51) “世宗謂予 薦拔無如轉經 汝宜撰譯釋譜.”

52) 전경법회에 관한 내용은 세종 28년 5월 27일과 10월 15일 條의 기사에 나온다.

53) 釋詳의 편찬 경위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그 핵심은 실록기사에 나오는 ‘佛經’과 ‘釋迦譜’에 대한 해석의 문제이다. 필자는 이 ‘佛經’을, 寫經佛事를 위해 조성된 寫經으로, ‘釋迦譜’는 승우의 「석가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增修釋迦譜’는 「석가보」의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 佛典의 내용을 석존의 일대기로서의 문맥에 맞게 선택·배열하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이 기사는 현전 釋詳의 모본인 한문본 釋詳의 편찬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라 하겠다.

54)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지적되어 온 釋詳의 문체적 특징, 곧 여타의 언해서들에 비해 한자어보다 고유어의 비중이 높고, 직역보다는 의역이며, 문장의 길이가 길다는 점 등은 釋詳이 전경을 위한 대본이라는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4. 맺음말

이 글에서는 본격적인 저경 연구의 일환으로, 현전 釋詳의 구성 및 저경과 그 수용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현전본의 서지사항을 간략하게나마 알아본 뒤, 낙장된 장차의 내용 및 저경을 가능한 범위에서 추정하였다. 곧 釋詳 권23의 제1·2장은 제3장 이하의 저경인 「大般涅槃經後分」 유교품 제1과 같은 저경이고, 권24의 제53장 이하는 月釋 권25와의 비교를 통해 ‘아유왕의 염부제 보시 및 죽음’에 관한 내용일 것으로 보았다.

다음으로, 釋詳 각 권차의 내용 및 저경을 삽화 단위로 세분한 도표를 제시한 뒤, 이 도표의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불본행집경」·「미증유인연경」·「연등회요」·「조당집」 등의 새로운 저경을 찾았고, 아울러 기존 논의에서 잘못 파악한 저경을 바로 잡았다. 또한, 「불본행집경」과 「조당집」은 각각 月釋 권4 및 「月印千江之曲」其133~136과, 月釋 권25의 저경에도 해당됨을 지적하였다. 아직 저경을 찾지 못한 삽화의 경우에는, 후속 연구자들의 편의를 위해 그와 유사한 경전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한편, 「석가보」·「약사경」·「대방편불보은경」·「법화경」 등의 주요 저경의 내용 및 성격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 특히 「석가보」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석가보」는 5권본과, 5권본의 ‘釋迦降生釋種成佛緣譜’ 항목을 증보한 10권본의 두 종류가 있으며, 5권본은 「보요경」을 중심 경전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10권본은 「과거현재인과경」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그리하여 釋詳 권3뿐만 아니라 「석가보」의 ‘釋迦降生釋種成佛緣譜’가 내용인 月釋의 저경 파악에 있어서는 이 5권본과 10권본을 구별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끝으로, 釋詳의 저경 수용 양상과 그 의미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 결과, 釋詳은 여러 저경들의 내용을 삽화 단위로 분리하여 그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전체 문맥에 맞게 재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러 경전이 하나의 삽화를

구성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맥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저경의 어휘를 한 저경의 어휘로 통일시키거나 저경이 바뀌는 부분의 마지막 단어를 연결어미로 처리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그리고, 釋詳이 이러한 저경 수용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유를 釋詳의 편찬 목적에서 찾았다. 곧 釋詳은 追薦儀式인 轉經法會에서 많은 승려들이 함께 소리 내어 읽는 대본으로 쓰일 것을 염두에 두고 편찬된 것으로, 이러한 釋詳의 성격으로 인해 釋詳의 편자는 한 경전의 내용으로 하나의 삽화를 구성할 수 있음에도, 문맥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되도록 많은 경전의 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상의 논의는, 저경의 탐색에 중점을 둔 나머지, 저경의 수용 양상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소략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저경의 탐색과 저경 수용의 양상에 대한 이 글의 논의는, 문학작품 내지 佛書로서 釋詳이 갖는 성격을 究明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내용은 여러 학문 분과에서 釋詳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하나의 경전으로 구성된 권차를 포함한, 현전 釋詳의 저경 수용 양상의 특징과 그 의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추후 별도의 논고를 통해 다루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순애. “새로 발견된 初甄本 월인석보 권25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16집 (1998. 12). 95-125.
- 강순애. “월인석보의 저본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22집(2001.12). 63-95.
- 고익진. “法華經 戒環解의 盛行來歷考.” 『불교학보』 제12집(1975.11). 171-198.
- 김기종. “월인천강지곡의 배경과 구성방식 연구.” 『불교어문논집』 제4집(1999. 12). 151-222.
- 김기종. “석보상절과 월인석보의 구성방식 비교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제41집 (2003. 8). 317-342.
- 김영배. “월인석보의 편찬.” 『불교학논총』. 서울: 동국역경원, 1998. 577-602
- 박금자. 『15세기 언해서의 협주연구』. 서울: 집문당, 1997.
- 심재완. “석보상절 제11에 대하여.” 『청구대 논문집』 제2집(1959. 11). 43-57.
- 이동립. “월인석보와 관계불경의 고찰.” 『주해 석보상절』. 서울: 동국대출판부, 1959. 1-28.
- 이병주. “釋譜詳節 第23·24 解題.” 『동약어문논집』 제5집(1967. 3). 106-188.
- 이호권. 『석보상절의 서지와 언어』. 서울: 태학사, 2001.
- 정승석. 『고려대장경 해제』(1~3권). 서울: 고려대장경 연구소, 1998.
- 조명화. “중국불교의 전기문학.” 『한국불교학』 제16집(1991. 12). 115-138.
- 平川彰. “대승불교에 있어서의 법화경의 위치.” 『법화사상』. 서울: 경서원, 1997. 23-77
- 僧祐. 『釋迦譜』(『大正新修大藏經』 제50권)
- 道宣. 『釋迦氏譜』(上同)
- 친명식. 『釋譜詳節 第三 註解』.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5.
- 『(역주) 석보상절 제6·9·11』.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1.
- 『(역주) 석보상절 제13·19』.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1.
- 김영배. 『釋譜詳節 第二十三·二十四 註解』. 서울: 일조각, 1972.